

‘유동성 위기설’ 롯데그룹, 밸류업·임원인사로 반전 나서

유통·화학 등 주력사업 부진에 ‘쇄신 인사’ 관측에 무게 실려 신유열 전무 승진 여부도 관심

롯데GRS, 롯데리아 수익 강화 신규 브랜드 출시 등 계획 중

‘유동성 위기’ 루머로 타격을 입은 롯데그룹이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계획과 조기 임원 인사 단행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롯데는 28일 이사회를 통해 임원 인사를 확정·발표한다. 롯데는 통상 12월 초중순 정기 인사를 단행해 왔지만, 올해는 그룹 안팎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기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는 최근 불거진 루머와 관련해 ‘롯데그룹의 지난달 기준 총자산은 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 5000억원에 달한다.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 56조원이며,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도 15조 4000억원 보유하는 등 안정적 유동성을



롯데월드타워 전경사진. /뉴스1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강조했음에도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자, 롯데가 임원 인사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사를 단행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그룹이 성과주의에 입각한 인사를 단행한 만큼 롯데 역시 전방위 인적 쇄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본업인 유통 사업의 악화와 화학 등 주력 계열사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쇄신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롯데쇼핑의 매출도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 추세다.

유통가 오너 3·4세대의 승진 행렬이 이어지면서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의 승진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인사를 통해 승진한 신유열 전무는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겸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으로 롯데그룹의 신사업에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위기 극복 의지도 드러냈다. 롯데지주는 3개년에 걸쳐 주주환원율을 35%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중간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롯데지주는 SK, LG 등 주요 비교 기업 대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일부 계열사의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투자주식 가치 제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주환원율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주요 상장 종속·관계사의 재무 목표도 제시됐다.

롯데웰푸드는 오는 2028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5%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8~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같은 기간 매출 5조 5000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0~15%, 부채비율 100% 이하를 목표로 설정했다. 롯데쇼핑은 2030년 매출 20조원(해외 3조원 포함), 영업이익 1조 3000억원, 최소 주당배당금 3500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성장 전략도 발표했다.

롯데지알에스(GRS)는 롯데리아와 크리스피크림 브랜드의 수익성 강화와 엔지니어링의 실적 개선을 추진하며, 신규 브랜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우량 점포 출점과 저수익 점포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 바이오캠퍼스 1공장의 성공적인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롯데지주는 임직원 중 여성 비율 30%, 장애인고용률 3.2%로 법정 의무(3.1%)를 초과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며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선·안재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美·日서 ‘소바바치킨’ 판매... 글로벌 정조준



CJ제일제당, 가공식품 K-치킨 만두 이어 ‘차세대 K-푸드’ 집중

국내 냉동치킨 시장 판도를 바꾼 CJ제일제당의 ‘소바바치킨’이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미국과 일본에서 ‘비비고 소바바치킨’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공식품 K-치킨의 글로벌 진출을 리딩하고 만두에 이은 차세대 K-푸드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비비고 소바바치킨’은 글로벌 현지 생산처를 활용해 11월 초부터 미국 코스트코(Costco)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일본에선 코스트코 전 지점에 입점을 마쳤다.

12월에는 유럽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우선 영국·프랑스·독일의 에스니 채널을 중심으로 ‘비비고 소바바치킨’을 선보이고, 향후 유통 채널과 국기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해외에 출시한 제품은 ‘단짠



비비고 소바바치킨 글로벌 제품. 왼쪽부터 미국, 일본, 유럽. /CJ제일제당

의 조화로운 맛이 특징인 ‘소이하니’다. 꿀을 더한 특제 간장소스로 구현한 감칠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CJ제일제당은 제품명처럼 소스를 발라도 바삭한 ‘소바바치킨’의 핵심 특성은 그대로 살리되 해외 소비자의 조리행태와 입맛에 맞춰 국가별로 조금씩 맛의 변화를 줬다. 유럽과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춰 소스와 염지 강도를 높여 조금 더 강한 맛을 선보였다.

CJ제일제당은 ‘소바바치킨’의 국내 시장 성공 요인이었던 ‘외식 수준의 맛 품질’과 ‘독보적 바삭함’이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에 출시된 아시안 냉동치킨은 소스를 별도

로 부벼야 하거나 소스가 입혀진 경우 눅눅한 제품이 대부분인데 ‘비비고 소바바치킨’은 소스가 이미 발라져 있어도 바삭할 뿐만 아니라 조리도 간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취식 편의성까지 챙겼다.

‘소바바치킨’은 CJ제일제당이 독자 개발한 ‘소스코팅’ 기술을 적용해 전문점 수준의 갓 튀긴 듯한 바삭함을 구현한 제품이다. 작년 4월 첫 제품인 ‘소이하니’를 선보인 이후 올해 11월 3주차 기준 누적 매출 1200억원 가까이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고메’ 브랜드로 판매하지만 K-푸드 대표 제품들은 모두 ‘비비고’로 통합·운영하는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만난다. /신원선 기자

GS리테일 허서홍 號 출범... 4세 경영 본격

GS그룹 2025 정기 임원인사 리테일 대표이사에 허서홍 내정



그는 2005년 GS홈쇼핑 신사업팀에 입사해 GS에 합류했으며, 이후 미국 세브론에서 3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경험을 쌓았다.

허서홍 GS리테일 부사장이 GS리테일 대표이사로 내정되며 오너 4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허서홍 대표(사진)는 그룹의 삼각편대 중 하나로 꼽히는 유통 부문을 책임지게 되면서, 허연수 부회장으로 부터 물려받은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GS그룹은 27일 발표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허서홍 경영전략SU(Service Unit)장을 GS리테일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이로써 허서홍 신임 대표는 GS그룹에서 GS리테일로 자리를 옮긴 지 1년 만에 유통사업 최고 의사결정자 자리에서 오르며 본격적인 경영에 나서게 됐다.

1977년생인 허서홍 대표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의 장남이자 허태수 GS그룹 회장의 5촌 조카다.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삼정KPMG 애널리스트로 경력을 시작한

2012년 GS에너지로 복귀한 뒤에는 LING사업팀 부장을 거쳐 전력·집단지너지 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미래사업팀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 휴젤의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 내에서 전략적 판단력을 인정받았다.

GS리테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약 1년 동안 경영지원, 신사업, 대외협력 조직을 총괄하며 리테일 비즈니스의 미래를 준비해 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이 심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본업 경쟁력을 혁신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쿠팡, 전국 호텔·펜션이 6만원대 부터

와우회원 대상... 테마별 숙소 마련

쿠팡이 ‘가성비 호텔 최저가 챌린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쿠팡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130여 호텔과 50여 펜션을 6만원대부터 선보인다. 투숙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까지다.

쿠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돋이 명

소, 송년회 특화 호텔, 겨울 레저 시설을 갖춘 리조트 등 다양한 테마별 숙소를 마련했다.

가장 먼저, 해돋이 명소로는 강원 동해안 지역의 숙소가 포함됐다. 주문진 인근에 있는 ‘SL 호텔 강릉’과 경포해수욕장 앞에 자리한 ‘경포 스카이에이 호텔’을 각각 최저가 9만원대, 18만원대에 만나 볼 수 있다. 속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를 갖춘 ‘속초 더블루테라 호텔’은 6만원대부터 예약 가능하다.

연말 모임과 송년회를 위한 호텔을 원리 해수욕장 인근의 ‘더위크앤리조트’와 송도 센트럴파크 앞에 위치한 ‘오리카이 송도파크 호텔’이 준비됐다. 각각 최저가 10만원대, 14만원대로 선보인다.

겨울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로는 스키장을 보유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와 서울 근교의 ‘골든툼 에버용인 호텔’ 상품이 마련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노량진 ‘형제상회’ 대방어 팝업 오픈

갤러리아백화점이 서울 명품관과 수원 광고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인기 매장 ‘형제상회’의 대방어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갤러리아백화점에 따르면 ‘형제상회’는 2006년 노량진 수산시장에 문을 연 매장으로 수산물 도매시장 최초로 프리미엄 모듬회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또한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당일 배송 서비스와 회 전용 보냉박스를 도입하

는 등 품질 관리에 집중해 왔다.

이번 갤러리아 팝업스토어에서는 겨울 제철 생선인 대방어를 주제로 ▲도시락 ▲카이센동 ▲후토마끼 등을 비롯해 ▲광어, 도미, 농어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모듬회 ▲초밥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가격은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팝업스토어는 내달 5일까지 명품관에서 운영되며, 이후 수원 광고점에서 오는 2025년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